

‘국교정상화60주년 기념’ 한일 전통 교류 무대

차세대 양국 전통예술가 교류 무대

2025년 올해는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은 무대공연부터, 전시, 청년 대상 이벤트 등 2025년 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월5일(한일음악의 우아함과 정취), 4월5일(시간 속의 상생)무대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갖게되는 이번 한일전통교류 무대는 민주음악협회(MIN-ON), 국립부산국악원과 공동개최로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 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무대는 ‘한일 청년 음악가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판소리, 대금, 해금, 장구 무대와 일본의 츠가루 샤미센, 25현 고토, 일본북 연주 그리고 양국 음악가들의 협연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 개요

- 행사명 : 한일국교정상화60주년 기념공연 ‘한일 청년 음악가의 만남’
- 일시 / 장소 : 2025.4.18.(금) 19시~ /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 홀
- 주최 : 주일한국문화원, 민주음악협회(民音), 국립부산국악원

붙임 1. 출연자 프로필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	행사담당자	팀 장	박지훈 (+81-3-3357-5970)
		홍보담당자	팀 장	조은경 (+81-3-3357-5970)

이진희 / 장구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기악단 악장(타악)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부산대학교 출강

오교선 / 대금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이수자

한수지 / 해금(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졸업 및 전문사 졸업

제31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해금부문 금상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박사 수료

신진원 / 판소리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전라북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궁가 이수자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음악극과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석사 졸업

2010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박사 과정

아사노 쇼 / 츠가루 샤미센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3세 때 일본복, 5세 때 츠가루 샤미센 시작, 이후 샤미센 오다지마流 2대 오다지마 도쿠오에게 사사. 7세 때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에서 개최된 츠가루 샤미센 전국대회에서 최연소로 출전하는 등 이후 각종 최연소 기록 경신. 2004년 츠가루 샤미센 전국대회에서 14세로 최연소 우승 이후 2006년까지 3연속 우승으로 명예의 전당에 등록.

2007년 VICTOR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祥風(쇼후)’로 메이저 데뷔. 최근에는 일본 유산×예능을 테마로 한 일본 문화청 주최 ‘NOBODY KNOWS’에 참가하는 등 일본문화 발굴 및 보급에 적극 참여. 일본 각지 민요를 현대 감각으로 편곡한 ‘MIKAGE PROJECT’와 여러 일본 전통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ART가부키악단’에 참가, 새로운 음악 장르를 개척중.

혼마 다카시 / 25현 고토

3세 때 고토를 12세 때부터 샤미센을 어머니로부터 지도받음. 도호학원 예술단기대학 예술음악전공 졸업 및 전공과 연구생 수료. 제7회 루마니아 음악 콩쿠르 실내악 부문 1위 이사회상 수상. NHK ‘민요혼’, NHK WORLD ‘Blends’, TV 애니메이션 ‘이 소리에 멈춰’ 등 미디어와 무대연극과 영화작품에도 출연 및 녹음 참가. 2019년 avex를 통해 ‘벚꽃 men’의 멤버로서 메이저 데뷔. 아쿠타류 고토곡 후미네회 주재 보좌. 공익재단법인 군마三曲협회 이사. 아티스트 그룹 ‘壹-ichi-’ 총감독. 미즈노 고토곡 학원 본부 소속. MIKAGE PROJECT멤버.

사카모토 마사유키 / 일본북

일본북 예능 그룹 ‘고동’의 중심 연주자로 솔로 및 센터 자리를 담당하며, 앙상블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무대를 리드. 2018년부터 솔로 활동 시작.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연주 활동. 일본북의 가능성 탐구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직접 아이디어 및 개발에 참여한 조율 일본북 ‘카나데’와 전자 일본북 ‘Taiko-1’이 굿디자인상 수상. 2002년부터 커뮤니티 ‘오프라인 일본북 살롱’, 해외대상 ‘Online Taiko collective’을 주재.